

“교과와 연계된 도서 추천 유용해요”



거주
충남 예산군
오가면



자녀
고1, 중2



구독 기간
3개월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

〈내일교육〉은 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

교육청에서 진행한 고교학점제와 대입 관련 학부 모 교육에 참여했다가 강사 선생님의 추천으로 〈내일교육〉을 알게 됐습니다. 두꺼운 입시 서적은 부담스럽게 느껴졌는데, 주간지라 틈틈이 읽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구독을 시작했어요. 직장을 다니다 보니 입시 정보를 따로 찾아볼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필요한 내용을 꾸준히 접할 수 있어 만족하며 보고 있습니다.

〈내일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가장 먼저 표지에 소개된 ‘위클리 테마’를 읽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줘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특히 인문 계열 합격생들의 학교 활동과 진학 과정을 소개하는 기사들을 관심 있게 읽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고1인 큰아이에게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 쌤과 함께! 교과 연계 적합서 ’ 시리즈도 아이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참고하는 데 도움이 돼요. 〈내일교육〉을 읽고 난 뒤에는 남편에게도 건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자녀 교육과 관련해 가장 큰 고민은?

아이의 관심 분야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하려면 관심사를 교과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와 연결 짓고 꾸준히 탐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진로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혼란스러워요.

〈내일교육〉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인문 성향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과 정보나 교과 활동 사례처럼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다양하게 소개되면 좋겠고요. 특히 희망 학과를 바꾼 학생들이 학교 활동을 어떻게 이어갔는지 실제 사례를 함께 다뤄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㉞

Reporter's A/S

최근 대학은 전보다 넓은 관점에서 진로 관련 역량을 평가합니다. 아예 전공 적합성을 보지 않는다고 발표한 대학도 있어요. 기사를 통해 대학의 평가 관점을 이해하면 진로 선택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거예요. 진로를 바꾸고 원하는 대학·학과에 진학했거나 대학 입학 후 전공을 선택하는 자유전공학부에 재학 중인 수시 합격생의 인터뷰도 함께 읽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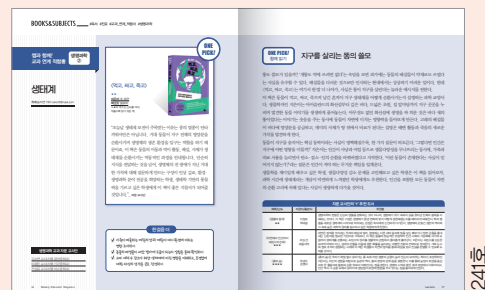
본지 1196호
전공 적합성 안 본다고?
대학마다 다른 진로 역량 평가



WEEKLY THEME | 점수 벗어나 실리 따져라

중하위권의 대입, 진학보다 진로!

“위클리 테마를 가장 집중해서 읽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입시 내용이라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해줘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돼요. 입시 흐름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쌤과 함께! 교과 연계 적합書 | 생명과학 ②

생태계

“교과와 연계해 읽으면 좋은 책들을 소개해 주는 점이 신선합니다. 아이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참고하기에도 좋고, 진로나 탐구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어 유용해요.”